

한말의 독도어업과 석도¹

박병섭

1. 석도, 우산도, 독도의 명칭 문제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하였다. 이 칙령은 일본에서는 1978년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에 의해 주목 받은 후,² 석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를 둘러싸고 관심을 끌어왔다. 일본인 연구자는 석도를 다음과 같이 비정하였다.

독도; 가지무라 히데키,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쓰카모토 다키시(塚本孝)³

관음도; 후나수기 리키노부(船杉力修),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불명; 호리 가즈오(堀和生),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시모조 마사오⁴)

이 중에서 관음도설인데, 후나수기는 “현지조사 결과 섬들은 죽서(竹嶼), 관음도 밖에 없었으니...석도는 관음도의 가능성이 높다.”⁵ 고 결론 지었다. 후나수기는 처음부터 독도를 검토 대상 밖으로 했으니, 논증 방법 자체에 의문이 있다. 또한, 시모조는 두번이나 견해를 바꾸었는데,⁶ 최근에는 『한국수산지』 부속지도에 인용된 서항도(鼠項島, 관음도)의 일본어 음독 ‘소코토’가 石島の 한국어 음독 “석도의 발음과 흡사하다.”⁷ 는 이유로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항도는 일본에서 ‘소코토’라고 음독되지 않았다. 이 일본어

¹朴炳涉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어·日本語) 韓国海洋水産開発院、2009.

朴炳涉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1号、2009.

朴炳涉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2010.

² 梶村秀樹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978、p.23.

³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3号、2000、p.89.

⁴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2004、p.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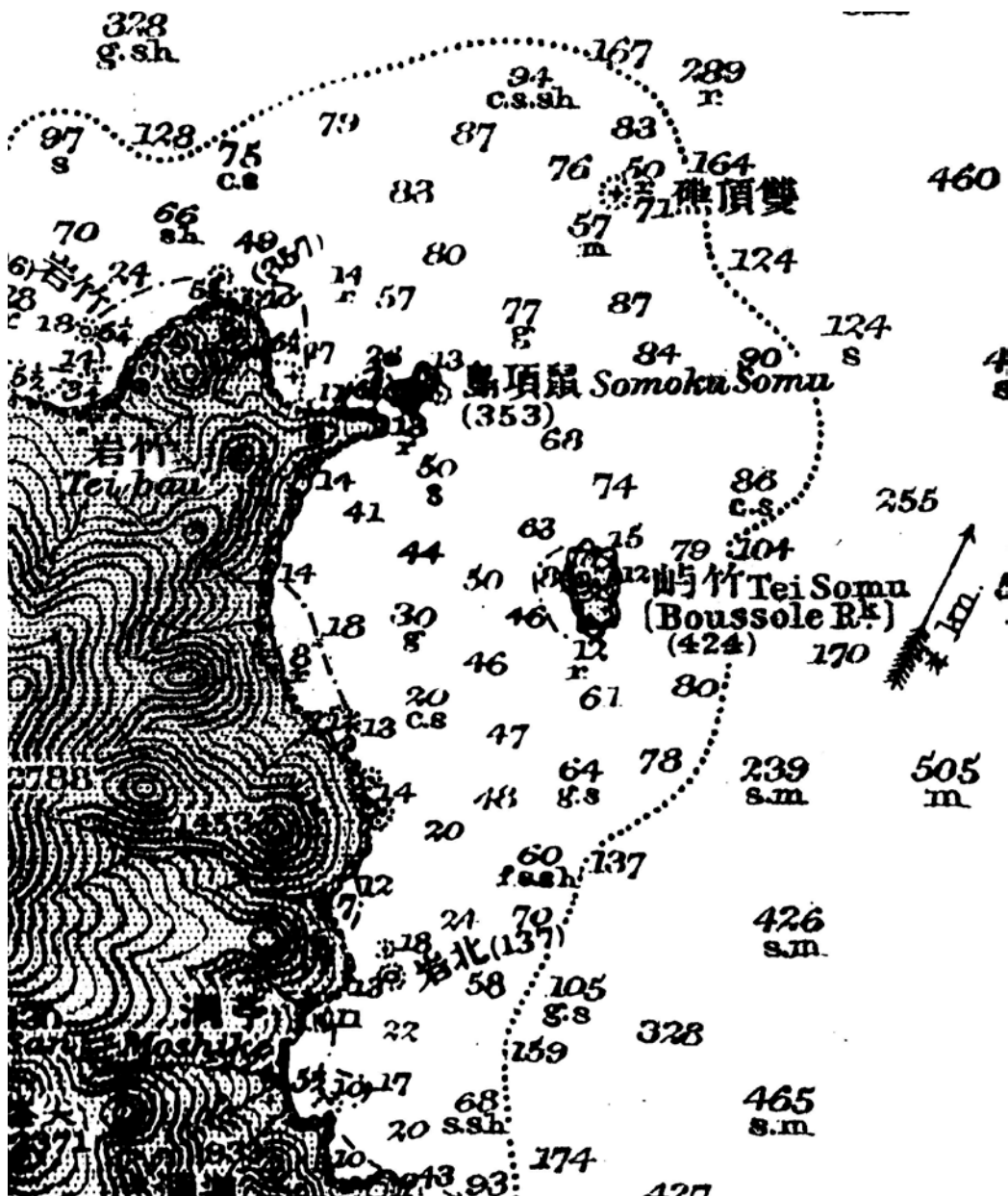
⁵ 船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 (Ⅱ)」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3、p.171.

⁶ 朴炳涉 「下條正男의 論說을 分析한다」 『獨島研究』 4号、2008、pp.81-83 (日本語) , pp.111-113 (韓国語) .

⁷ 下條正男 「独島呼称考」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 19号、2008、p.30.

호칭은 『한국수산지』 부속지도의 원본인 해도 306 호(도판 1)에 ‘鼠項島 Somoku Somu’ 라고 써 있으며,⁸ ‘소모쿠소무’ 라고 불렀다. 이는 관음도의 「鬱陵島外圖」(이규원, 1882)에 있어서의 이름 섬목(島項)이 일본식으로 ‘소모쿠’ 라고 표현되고, 이에 섬을 뜻하는 ‘소무’ 가 부가된 것이다. 이처럼 서향도는 석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석도를 서향도라고 한 시모죠의 주장은 근거없는 견강부회라 할 수 있다.

도판 1 수로부 해도 306 호 ‘울릉도’ (1909) 동부 확대도



⁸ 水路部「海圖 第 306 号 朝鮮東岸 竹辺湾至水源端」 1909.

석도는 관음도가 아니면, 울릉도 근처에는 따로 석도의 후보가 될만한 섬이 없으므로 석도는 독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많은 연구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독도가 갑자기 석도 이름으로 칙령에 등장했는지 의문이 된다. 일본의무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한,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나아가서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⁹

이 의문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특히 왜 우산도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가설을 소개한다.

우산도 이름이 칙령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인데, 이는 울릉도를 검찰한 이규원(1882)이나 울릉도의 한일합동조사(1900)를 실시한 우용정 등이 현지에서 우산도를 확인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1900 년경에 주민들도 우산도를 찾는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였다. 이 노력을 매일신보(1913.6.22)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산도 탐험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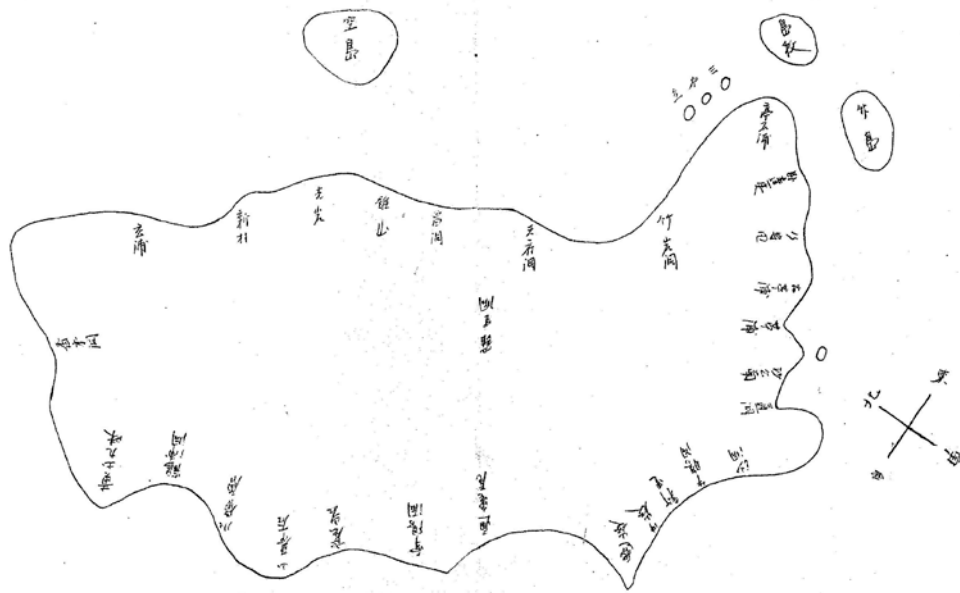
경상남도 울도군 서면 김원준(金元俊)은 울도로부터 동북 방향 약 4, 50 리를 距하여 위치를 정한 우산도라 하는 무인도가 유하다 한즉 此를 발견하면 단체로 이주할 계획인데 찬성자를 모집하고 그 비용이 매인에 대하여 금 4 원 거금하여 약 100 원으로 범선을 고입(雇入)한 후 3 명의 승조 탐색하기로 출발할 사 결정하며 찬성자가 30 명에 달하였더니 右 우산도는 其 실재의 전설이 유하나 曾히 십 수년 전 동지내선인(同地內鮮人)의 연합으로 사선(射船)을 고입하여 탐색하였스나 발견치 못할뿐만 아니라 근년에 해 항로가 빈번하여도 아즉 차를 현인(現認) 하였다는 事가 무하다고 해도에도 現한 자 무한즉 가령 존재하다 할지라도 차를 발견함은 용이한 사가 아니오 반히 무익한 비용을 소비함에 불과하겠다고 중지하였다더라

울릉도에 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공동으로 십 수년 전에 우산도 탐색을 했으나 실패하고 우산도를 잃고 있었다. 위 기사가 실린 때는 1913 년이므로

⁹ 일본의무성,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 포인트' 6-6.

그로부터 십 수년 전이라 하면 1900 년 전후가 된다. 즉 우용정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와 울릉도 합동 조사를 실시한 해를 전후하여 우산도 탐색이 행해진 셈이 된다. 합동조사 후에 아카쓰카가 일본의무성에 보낸 보고서 「울릉도 조사 개황」(1900)에 첨부된 울릉도 지도는 도판 2 와 같다.

도판 2 아카쓰카 쇼스케 「울릉도 조사 개황」 부속지도 (1900)¹⁰



도판 2 에서 울릉도 동북쪽에 ‘공도(空島)’가 섬목(관음도)이나 죽도(죽서)보다 크게 그려졌다. 아마 부속 지도는 공도를 전설의 우산도로 생각했지만 우산도의 존재가 확실치 않았으므로 우산도의 이름을 피해 무인도의 뜻으로 ‘공도’라고 이름 지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공도’가 우산도임이 판명되었다면 ‘공도’는 물론 칙령 41 호에 우산도 이름으로 기술되었을 것이다. 우산도는 많은 관찬서에 기재된 역사적인 명칭이므로 당연히 그 이름이 칙령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은 전설의 동북방향으로 우산도를 찾지 못해 탐색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존재가 애매한 우산도를 칙령에 기재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¹⁰ 『駐韓日本公使館記録』(影印版)第11卷、国史編纂委員会、釜山領事館機密京第17号(明治33年6月12日)、1989、p.140; 外務省記録3532、赤塚正助「鬱陵島調査概況」、『鬱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짐작된다.

다음은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일본외무성의 의문에 대한 해명이다. 후자의 의문인데, 독도 이름이 광복 전에 확인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04 년 「군함 니타카(新高) 행동일지」에 “리앙코루도 암, 한인은 이를 獨島라고 쓴다”

1905 년 『地学雜誌』 210 호에 “리앙코루토 섬이라 하며, 한인은 이를 獨島라고 쓴다”

1906 년 군수 심홍택 보고서 “본군 소속 獨島”

1923 년 『島根県史』에 “조선에서는 獨島라고 쓴다”

이들에 공통된 점은 獨島가 필기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이 獨島를 독도라고 음독하지 않았던 것을 암시한다. 또한 1904-6 년의 세 가지 자료는 출처의 계통이 각각 다르므로, 獨島의 필기명은 이 무렵에 널리 울릉도에서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말의 독도어업

1904 년에는 이미 獨島라고 기록된 독도를 주민들이 어떻게 호칭하고 있었던지 살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독도를 잇는 자료를 찾아야 된다. 독도는 울릉도의 높은 곳에서 보이기 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부 외는 독도까지 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만한 자료는 어업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독도 어장의 특징인데, 독도는 작은 섬이니만큼 전복 채취 등 해변가 어업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독도에는 음료수나 장작 등이 없고 어선을 계류할 곳도 없으니, 어업에는 적당치 않았다. 게다가 독도는 절해의 고도이며 주변 바다는 깊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로써는 잡을 수 있는 어종도 적다. 그런 악조건이 겹친 독도에서 일부러 어업을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어업은 다음과 같다.

상어잡이

상어 지느러미는 청나라로의 고급 수출품이며 이익이 된다. 상어잡이의 신기술인 연승 어업은 너무 효율이 좋아서 일본연해에서는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어민은 조선연해로 진출해, 이윽고 먼 울릉도 해역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록이 있다.

- 1899 년에 오이타(大分)현 어민이 울릉도해역에서 상어잡이를 함.¹¹
- 1899-90 년 5, 6 월에 양코도(독도)로 상어잡이 어선이 두어 번 출어함.¹²

전복 따기

전복도 청나라로의 수출품이다. 한때 일본에서는 잠수기선에 의한 전복 따기가 붐이 됐는데, 남획을 초래해, 엄한 규제로 붐이 끝났다. 이 때문에 잠수기선이 대거해 조선으로 진출, 남획, 어장 황폐, 신 어장 개척의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드디어 일본 어민은 멀리 울릉도로 진출하였다. 1899 년에 울릉도에서는 과잉 출어 때문에 흥어가 되어, 수확이 전년의 1/7, 480kg으로 줄었다.¹³ 이 때문에 악조건의 독도에서 전복 따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 1899-90 년에 규슈 지방의 잠수기선 1 척이 어족을 쫓고 ‘신 도서’ (양코)를 발견, “해마 수 백마리가 떼를 지어 잠수기선에 방해가 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¹⁴
- 1899 년경에 야마구치(山口)현의 잠수기선이 독도로 출어해, “잠수 때에 무수의 해마 떼에 방해 당하였다.”¹⁵
- 이 외에 1883 년에 구마모토(熊本)현의 어선이 전복을 뺏다든지, 1890 년에 미에(三重)현 어선이 전복을 뺏다고 하는 증언도 있으나 확실치 않는다.

이런 어업 외에 강치 잡이가 한번 있었다. 오키(隱岐)어민들이 1897 년경에 독도 부근에서 난파한 배를 수색한 김에 강치를 5, 60 마리 박살해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다.¹⁶ 이 특수 예를 빼면, 독도에서의 어업은 울릉도를 기지로 행해졌던 것이 특징이다. 당시 어선에는 냉장, 냉동 시설이 없었으므로, 어획물은 곧 건조한다 등의 보존 처리가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출어지 가까운 곳에 작업장을 설치해, 수개월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독도어업은 울릉도에 거주해, 작업장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¹¹ 朝鮮漁業協會「朝鮮海水業の実況(第拾回巡邏報告)」『大日本水産会報』第210号、1899.12.15、pp.9-43; 李鍾学『韓日漁業關係調査資料』史芸研究所(京畿道水原市)、2000、p.280.

¹² 葛生修亮「韓国沿海事情」、『黒龍』第1卷第2号、1901、p.13.

¹³ 外務省記録3532「輸出入統計表」、『鬱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¹⁴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地学雜誌』、第13輯第149卷、1891年5月、p.301.

¹⁵ 葛生修亮、前掲論文; 前掲『地学雜誌』.

¹⁶ 奥原碧雲『竹島及鬱陵島』、p.7.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일본인이 어업을 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조약 상의 개항지가 아니었으므로, 울릉도에 작업장을 만들거나, 일시적으로나마 거주하는 것은 위법이었다. 그러나 울릉도에는 불법거주자를 강제 추방할 경찰력이 없었으므로, 특히 청일전쟁 후에는 울릉도에 불법으로 거주해 나무를 도벌하는 일본인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1896 년부터 부임한 울릉도도감 배계주는 일본인의 거주를 묵인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수출세를 거두기로 하였다. 도감은 일본인을 주민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는 일본어를 조금 이해하는데, 징세를 위해 실질적인 도감 관사를 일본인이 많이 사는 도동으로 옮겨, 일본인 협력자를 얻어 일본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인이 화물을 수출할 때 직원 2 명을 파견해 수출액수의 2/100 의 세금을 콩으로 징수하였다.¹⁷ 따라서 도감은 울릉도를 출입하는 배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울릉도를 기지로 한 독도어업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도감 및 주민이 독도를 인식한 결과, 獨島라는 필기명을 기록에 쓰게 된 것 같다.

다음에 어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된 獨島는 어떻게 호칭됐는지 살펴본다. 독도의 호칭명은 시대가 좀 내려가지만, 조선인 사이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쿠송, 독섬, 영어로 Docksum, 돌섬이었다.

1925 년경	오쿠무라 료 진술서에서 ‘도쿠송’ ¹⁸
1947 년	남선경제신문에서 ‘독섬’ ¹⁹
1948 년	『국제보도』에서 ‘독섬 (獨島)’ ²⁰
상동	GHQ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Docksum’ ²¹
상동	『새한민보』에서 ‘돌섬’ ²²

호칭명 ‘도쿠송’은 독섬의 일본어 표기이다. 이처럼 독도의 호칭명은 독섬이며, 광복 후에는 돌섬도 함께 사용되었다.

¹⁷ 外務省記録 3532、赤塚正助「受命調査事項報告書」、『鬱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¹⁸ 外務省アジア局『竹島漁業の変遷』、1953、p.37。

¹⁹ 南鮮經濟新聞記事「獨島는 이런 곧」, 1947.8.28; 鄭秉峻「解放後韓國の獨島に対する認識と政策(1945-51)」(日本語),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5-2, 2008, p22.

²⁰ 宋錫夏「古色蒼然한 歴史的遺跡 鬱陵島를 찾아서」, 『國際報道』第3卷 1号 (通卷 10号), 國際報道連盟, 1948年 1月, p.328.

²¹ "Request for Arrangement of Lands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Seoul, Korea (August 4, 1948).

<http://dokdo-research.com/page30.html> 에서 재인용.

²² 「돌섬은 우리 섬」 『새韓民報』 2-13, 1948, p.11; 鄭秉峻, 前掲論文 p22 에서 재인용.

3. 石島의 호칭명

한말에 울릉도 주변의 섬들은 지도에 한자로 표기됐지만, 이들의 호칭명은 음독이 아니라 훈독되었다. 島項은 앞에 쓴 바와 같이 ‘섬목’이며, 竹島(竹嶼)는 ‘뎃세미(テ ッ セ ミ)’²³, ‘Tei Somu’(도판 1)이었다. 이는 대나무 섬 ‘뎃섬’에 유래한다. 똑같이 칙령 41 호에 등장한 石島도 훈독됐다고 짐작되지만, 이를 직접 나타내는 자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당시의 수로지에 의하면 한국에는 石島가 7개소 있으며, 그 중 5개소에 다음과 같이 토가 달렸다.²⁴

忠清南道 庇仁灣 外煙列島の 石島	トルソム(도루소무)
상동 狐島 남쪽의 石島	マクソム(마쿠소무)
京畿道 漢江口 沖隅島 서쪽의 石島	トルソム(도루소무)
黃海北道 大東灣 大島 西端의 石島	トリソム(도리소무)
全羅南道 所安群島 所安港의 石島	ト、クソム(도토쿠소무)

이들 石島는 현지에서 음독된 것이 아니라, 각각 현지 고유의 호칭명으로 훈독됐던 것이다. 이 외에 강원도 거진에 있는 石島와 경기도 한강 근해 매음수도에 있는 石島에는 토가 없어서 호칭명을 알 수 없다. 위의 호칭명 ‘도루소무’, ‘도리소무’는 돌섬에 유래하는 것이 분명하다. ‘마쿠소무’는 ‘막섬’ 즉 맨 끝에 있는 섬의 뜻일까? 마지막의 ‘도토쿠소무’라고 기록된 石島는 현재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충도리에 속한다. 이 섬은 『韓國地名總覽』(1984)에 ‘독섬’이라고 기록되었다.²⁵ 石의 훈독은 표준어로 ‘돌’이지만,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전라도에서는 ‘독’으로 훈독된다.²⁶ 따라서 수로지에 기재된 ‘도토쿠소무’는 石島의 전라도에서의 훈독 ‘독섬’에 유래한다고 짐작된다.

칙령 41 호에 기재된 石島인데, 이 호칭명은 1900년에 울릉도에서 다수를 차지한 강원도나 경상도의 호칭명인 ‘돌섬’이었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명은 선주자의 명명을 계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울릉도에서도 먼저 선주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대에 들어서 해금정책을 어기고

²³ 外務省記録 616-10 「明治三十五年 蔚陵島狀況」、『釜山領事館報告二』、1902。

²⁴ 水路部 『朝鮮水路誌』第2改版、1907；水路部 『日本水路誌』第6卷、1911。

²⁵ ハングル学会(ソウル) 『韓國地名總覽』第15卷、1984、pp.315~316；愼鏞廈 『獨島の民族領土史 研究』知識産業社(ソウル)、1996、p.197。

²⁶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上卷、岩波書店、1944、p.218。

울릉도에 거주한 도민 140 명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 의하면 전라도 출신자가 가장 많아 115 명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는 전라도 石島(독섬) 근처에 있는 삼도(거문도)로부터 3 단체 49 명이, 초도로부터 2 단체 33 명, 도합 82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신지 가까이에 있는 石島를 독섬이라고 호칭하는 그들은 울릉도에서 늦어도 1899 년에는 어업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돌뿐인 섬을 독섬이라고 호칭해, 石島라고 필기한 듯하다. 이런 사정으로 칙령 41 호에 石島라고 기재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윽고 독섬은 필기명이 石島에서 獨島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필기명의 변화는 관음도도 같다. 이 섬은 이규원에 의해 필기명이 島項으로 정부에게 보고되었다. 그 후 1883 년에 일본 내무성 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가 울릉도에서 얻은 지도에서도 필기명이 島項이었지만, 다음 해에 아카쓰카 쇼수케가 얻은 지도(도판 2)에서는 島牧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島項을 혼독으로 섬목이라고 호칭하였는데, ‘목’을 혼독에서 음독으로 변해 ‘牧’으로 됐던 것이다. 게다가 1910 년에는 鼠項島(도판 1)로 변했지만, 어원은 물론 섬목이다.

4. 1900- 05 년의 독도어업

1905 년에 일본은 내각회의에서 독도는 무주지이며, 거기서 어부 나카이가 강치잡이를 행한 것은 국제법상의 점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 시마네현 관할로 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칙령 41 호의 石島이며, 무주지가 아니므로 내각회의 결정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1905 년 이전에 울릉도민이 독도로 자주 출어하고 있었다. 그 어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1899-1900 년에 상어잡이가 이루어진 것은 앞에 쓴 것처럼 오쿠하라 헤키운의 논문에 기록되었다. 이 외에는 전복 따기가 부산의 일본영사관에 의해 1902 년에 외무성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이 섬(울릉도, 필자 주)의 정동쪽 오십 해리에 3 개의 작은 섬이 있어 이를 리양코도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은 마쓰시마라고 칭한다. 그곳에 다소의 전복이 있으므로 울릉도에서 출어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섬에는 음료수가 없으므로 길게 출어하지 못하므로 4-5 일이 지나면 울릉도로 귀항한다.²⁷

²⁷ 外務省記録 616-10 『釜山領事館報告二』 「明治三十五年 鬱陵島狀況」; 外務省通商局 『通商彙纂』 第 234 号 「韓國鬱陵島事情」、1902.10.16、pp.43-51.

이 기사는 리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고 울릉도로부터의 출어를 기록한 것이다. 출어한 어민은 아마 일본인 같은데, 하여간 울릉도에 거주하는 어민이 리양코도(독도)로 출어해, 4, 5 일만에 울릉도로 돌아왔다. 리양코도는 작고, 전복의 절대량은 적다. 오쿠하라 헤키운에 의하면 리양코도는 “협소한 바위 섬이므로, 2, 3 일이면 채취할 곳이 없게 된다.”²⁸ 고 한다. 1902 년에 독도에서 전복 따기가 행해진 것은 역시 울릉도에서의 전복 따기가 남획 탓으로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위의 영사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올해는 아마쿠사(天草), 오키 등의 어업자 합계 8 척의 배가 도동을 근거지로 정하고 또한 시마(志摩)의 잠수기선 2 척과 아마쿠사의 어선 1 척은 저동에 오두막을 지었다. 이 모든 배가 울릉도의 해안을 돌고 어업을 했으나,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어획량이 적어 이윤도 많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였다.

독도에서는 이 외에 강치잡이가 이루어졌다. 1903 년에 시험적인 강치잡이가 돗토리현 (鳥取県) 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및 오키의 이시바시 마쓰타로 (石橋松太郎)에 의해 행해졌다. 이는 “러일전쟁 직전의 피혁이나 기름의 고등 상황을 보고, 다케시마(독도)에 군생하는 강치에 주목하게 되었다.”²⁹ 고 한다. 다음 해는 나카이 외에 오키에서 이시바시구미(石橋組), 이구치구미(井口組), 가토 주조(加藤重藏)가 출어했고, 울릉도에서는 야마구치현의 이와사키 아무개(岩崎某)가 “한인을 데려왔다.”³⁰ 고 한다. 이 한인은 홍재현 등으로 생각된다.³¹

나아가 1905 년에 되면 강치잡이는 과당경쟁이 되어, 어부가 오키에서 4 조·7 척·33 명, 돗토리현에서 1 조·2 척·8 명, 울릉도에서 3 조·6 척·29 명, 합계 8 조·15 척·70 명이 독도에서 강치를 남획하였다. 울릉도로부터 출어한 어부 29 명 중 16 명은 한국인이었다.³² 그들은 일본인과 공동으로 출어한 것이다. 독도로의 출어를 부산의 일본영사관은 ‘울릉도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²⁸ 奥原碧雲、『竹島及鬱陵島』、報光社、1907、p.11.

²⁹ 堀和生「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号、1987、p.110.

³⁰ 中井養三郎「明治参拾七年中ノ調査」『竹島資料7』(鳥根県立図書館所蔵);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復刻版)古今書院、1996、p.188.

³¹ 洪在現「陳述書」『独島問題概論』外務部、1955、p.35.

³² 中井養三郎「明治参拾七年中ノ調査」『竹島資料7』(鳥根県立図書館所蔵).

‘도도’라고 부르는 바다 짐승은 울릉도로부터 동남쪽 약 25 리 위치에 있는 랑코도에 서식하고 있고, 작년 즈음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하였다. 포획 기간은 4월부터 9월에 이르는 6개월간이며, 어선 1조당 사냥꾼 및 수부 등 10 명으로 하루 평균 5 마리를 잡는다고 한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30 명 있으며, 어선 3 조가 있다. 또한 ‘도도’ 1 마리당 현재 시가는 평균 3 엔 정도이다³³.

이 글이 외무성에게 보고된 것은 7월 31일, 즉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후였다. 그러나 부산영사관은 랑코도, 즉 독도를 여전히 울릉도의 속도로 보고, 거기에 울릉도민이 강치잡이를 한 것을 보고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토편입을 관보 등 정부 레벨에서 공표하지 않았기에 영사관은 랑코도가 일본의 신 영토 ‘다케시마’로 됐다는 것을 몰랐던 듯하다.

이 영사관 보고를 받은 외무성은 보고서 중의 랑코도를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다케시마’로 변경하지 않고, 보고서 중의 이름 ‘랑코도’ 그대로 외무성 『통상회찬(通商彙纂)』 50 호에 실었다. 외무성 담당자도 랑코도를 울릉도 부속 섬, 즉 한국 영토로 보는 종래의 인식에 변함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랑코도의 기사는 그대로 「관보」(1905.9.18)에 게재되었다. 「관보」조차 랑코도를 울릉도민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울릉도의 속도, 즉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이것이 일본정부의 공식견해가 된 것이다.

이 「관보」 반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7 개월 전의 독도 영토편입에 관한 내각회의의 결정이 마땅치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내각회의에서는 독도의 영토편입을 무주지에 대한 선점 취득이라고 했지만, 「관보」는 울릉도민의 경제활동의 장소인 독도를 무주지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 경우 「관보」는 대신훈련(大臣訓諭)이나 현고시보다 우선하므로, 영토편입에 관한 내무대신훈련 87 호 및 시마네현고시 40 호는 그 근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를 한쌍으로 보는 인식은 오키에서는 일반적이었다. 오키 도사(島司) 히가시 분수케(東文輔)는 리양코도의 영토편입에 앞서 시마네현으로부터 (1)그 섬을 오키도사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느냐, (2) 섬의 명명 등에 관한 조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도사는 (1) 지장이 없다, (2) “명칭은 竹島가 마땅하다, 원래 조선 동쪽 바다에 松竹 양도가

³³ 外務省通商局『通商彙纂』第50号「鬱陵島現況」、1905.9.3. pp.49-51; 官報「韓國鬱陵島現況」明治38(1905)年9月18日。25 리는 100km로 된다.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비로 전해지고 있다.³⁴” 고 회답하였다. 松島·竹島 양도는 오키 앞바다가 아니라 조선 동해에 존재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독도를 잘 아는 나카이 요자부로 등 어업자는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⁵ 이는 어업자에게 중요한 해도나 수로지가 양코도를 일본이 아니라 조선 쪽에서 다루었던 것이 원인의 하나이다.

5. 결론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에 등장하는 石島에 관해 시모조 마사오는 石島의 한국어 음독 ‘석도’와 『한국수산지』 부속지도에 그려진 鼠項島의 일본어 음독 ‘소코토’의 발음이 닮았다는 이유로 石島를 관음도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鼠項島는 ‘소모쿠소무’라고 불렸던 것이며, 시모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石島는 많은 연구자가 주장하듯이 독도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한 것에 대한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시모조 마사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약 그 석도가 한국 측의 주장대로 竹島라면, 竹島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1905년보다 전에 竹島는 한국령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에 의한 竹島의 시마네현 편입은, 한국 측 주장대로 위법행위가 된다.³⁶

이 주장은 주목된다. 한국이 칙령에서 독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독도는 무주지일 수는 없다. 그 섬을 일본이 영토 편입한 것은 만국공법에서도 위법이 될 것이다.

한편, 칙령에서는 많은 관찬서 등에 기재된 우산도 이름이 없다. 이유는 울릉도로 파견된 검찰사 및 시찰관 등 관리들이 현지에서 우산도를 확인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울릉도에 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공동으로 1900년경에 우산도 탐색을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런데 일본인이 울릉도를 어업 기지로 하거나, 혹은 울릉도에 사는 것은 위법이었다. 그런 일본인을 강제 추방할 힘이 없는 울릉도도감 배계주는

³⁴ 島根県『竹島關係資料集第2集 島根県所藏行政文書一』2011, p.49. 히가시는 에도시대 때 울릉도의 공식 명칭이 竹島인 줄 몰랐던지, 회답에서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³⁵ 中井養三郎「事業經營概要」『竹島資料7』(島根県立図書館所藏).

³⁶ 下條正男『「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 p.98.

일본인의 불법거주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인으로부터 수출세를 징수하였다. 도감은 일본인을 주민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일본어를 이해하는 도감은 일본인 협력자를 얻어 일본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또한 울릉도를 출입하는 배를 감시하고, 담당자 두 명을 파견해 수출세를 콩으로 징수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도감은 주민의 독도에서의 전복 따기나 상어잡이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도감이나 주민 등은 독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으나, 그 섬을 우산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독도가 石島 이름으로 칙령에 기재되어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되었다.

칙령의 石島는 실제로 어떻게 호칭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각지에 있는 石島는 『조선수로지』, 『일본수로지』에 의하면 ‘석도’라고 음독되지 않았으며, ‘도루소무’, ‘도리소무’ 등으로 혼독되었다. 이는 분명히 돌의 섬을 뜻하는 돌섬에 유래한다. 단 전라남도에 있는 石島는 ‘도토쿠소무’라고 호칭되었다. 이 섬은 『한국지명총람』(1984)에 독섬이라고 기록됐으니, ‘도토쿠소무’는 독섬에 유래한 것이다. 독섬은 전라도 방언으로 ‘돌의 섬’을 뜻한다.

이 전라도 石島(독섬)에 가까운 삼도(거문도) 및 초도로부터 건너온 어부들이 울릉도 개척(1883) 직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늦어도 1899년에는 어업을 통해 알려진 돌의 섬인 독도를 그들의 방언으로 독섬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 호칭명이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되어 칙령에 기재됐다고 보인다.

이후 독섬은 표기가 石島로부터 獨島로 변하였다. 1904년에는 군함 니타카에 의해 독도의 필기명이 獨島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1906년에 군수 심홍택 보고서에 ‘본군 소속 獨島’라고 표기됐다든지, 일본 『지학잡지』에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됐으므로, 獨島라는 필기명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1923년에 발간된 『島根県史』에서도 “조선에서는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되었다. 이 필기명은 오늘날에 이어진다. 필기명이 변한 이유는 石島라고 표기한다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를 돌섬으로 혼독할 수 있어도 독섬으로는 혼독할 수 없으니 표기를 바꾸었다고 보인다. 獨島라면 독섬으로 혼독할 수 있다.

獨島의 호칭명은 1925년경에 조선인 사이에서는 ‘도쿠송’이었다고 일본의무성 자료에 기록되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독섬의 일본어 표기이다. 광복 후에는 호칭명 ‘독섬’이 미국 공문서에서도 확인된다. 한편으로는 호칭명 ‘돌섬’도 한때는 사용되었다. 현재는 이런 호칭명이 거의 사라져 독도라고 불려져 있다.

한편, 石島는 칙령 41호에 울릉도의 속도로 명기됐는데,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부산의 일본영사관도 똑같다. 1902년 이후 일본영사관에 의한 울릉도 보고에서는 독도가 리양코도 혹은 랑코도 이름으로 다루어졌으며, 독도로 울릉도민이 출어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이런 속도 인식은 1905년 2월의 영토 편입 후에도 변함이 없었으며, 7월에도 영사관은 울릉도민이 랑코도에서 강치 사냥을 한 일을 외무성에게 보고하였다. 외무성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通商彙纂』에 영사관 보고를 그대로 실었다. 더 나아가서 그 보고는 관보에도 그대로 게재됐으니, 랑코도는 울릉도민이 어업을 할만한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이 일본정부의 견해로 되었다. 이는 무주지 선점을 명분으로 독도를 영토 편입한 내각회의 결정의 근거를 뒤엎는 것이다.